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수행능력과 수행자신감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윤은주, 박영미*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Re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Confidence and Anxiety

Eun-Joo Yoon, Young-Mi Park*
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을 시행한 후 간호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불안의 전 후 차이를 파악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일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176명이며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은 2016년 12월 20일~23일까지 진행되었다.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전, 후로 간호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불안을 측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후 간호대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간호수행능력($t=-11.57, p<.001$)과 수행자신감($t=-10.21, p<.001$)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불안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4.76, p<.001$). 이에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이 임상실습전 간호대학생의 간호수행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므로 학년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실습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핵심기본간호술, 간호대학생, 간호수행능력, 자신감, 불안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eeducation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competence, confidence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We collected the data from 176 2nd grade nursing students. Reeducation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th to 23rd, 2016. Data were analyzed by SPSS 21.0 program. As the result of reeducation, significant improvement was found in competence($t=-11.57, p<.001$), confidence($t=-10.21, p<.001$) and considerable decrease was recognized in anxiety($t=-4.76, p<.001$). In conclusion, reeducation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can help students to improve their overall competence and confidence, and also to reduce their anxieties as they start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Therefore we suggest that more systematic and continual reeducation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should be applied to each grade of nursing students who are facing their clinical practice in hospital

Key Words : Core basic nursing skills, Nursing students, Competence, Confidence, Anxie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다양한 건강상

태의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론을 실제적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인 실습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1]. 실습교육은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적인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으로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대상자와 관련된 실무 상황의 복잡성과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전문직에 적합한 사고과정을 개발하고 습득된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총체적인 간호지식을 얻게 된다[2]. 이처럼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은 다양하고 질적인 간호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증가, 간호사의 업무과다와 및 실습교육에 대한 관심결여, 실습 교수의 직접적인 간호활동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대부분 관찰위주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실습 중 핵심기본간호술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평균 3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3,4].

이러한 관찰위주의 실습환경으로 인해 간호학생은 실습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대상자들의 문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간호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또한 임상 현장에서 의료인 및 환자,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 등으로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며 첫 임상실습으로 경험하게 되는 불안과 같은 심리적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하여 간호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6,7]. 특히 기본간호학 실습실에서만 교육을 받던 학생들은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 이수 후 몇 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임상실습을 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일 뿐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간호환경 때문에 다른 어느 경우보다도 더 심각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임상실습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8].

최근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간호사의 능력이 더욱 요구되면서,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 졸업생에게 최소한의 표준화된 임상수행능력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9],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KABON)에서는 2012년도에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20가지의 표준화된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항목 및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10]. 현재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교육기관의 인증평가 항목으로서 통합실습교육 등으로 학습할 것을 권고하여 각 대학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임상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에 대한 효과를 검

증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수행능력, 수행자신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 비판적 사고성향 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1-16].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술기에 대한 반복 연습이 가능하므로 간호학생들이 병원 현장에 노출되기 전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임상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프로그램이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전 실습적응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을 마친 2학년 재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간호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효율적인 핵심기본간호술 교육 방안을 위한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에게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을 실시한 후, 간호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넷째, 간호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및 불안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이 간호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단일군 전·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일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중이며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에 참여하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 176명을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핵심기본간호술 간호수행능력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간호수행능력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 20가지 중 6가지 주제 즉, 활력징후측정, 간헐적 위관 영양, 수술전 간호, 단순도뇨,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비강캐놀라를 이용한 산소요법을 대상자가 스스로 인지한 간호수행능력 점수로 평가하였다. 6가지 주제에 대한 세부 항목 선정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체크리스트 중 *표시가 있는 부분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활력징후측정은 11개의 항목으로, 간헐적 위관 영양 7항목, 수술전 간호 6항목, 단순도뇨 10항목,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4항목, 비강캐놀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8항목으로 선정하였다.

20개의 핵심기본간호술 중 6개 주제는 A 대학교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간호학실습에서 이미 학습하였고, 추후 3학년 1학기 임상실습교과목인 성인간호학실습 I, 여성건강간호학실습 I, 아동간호학실습 I에서 성취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선정된 항목은 2인의 기본간호학교수와 1인의 성인간호학교수가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 간호수행능력은 교육 전과 후에 자가보고 형식으로 측정하였으며 간호수행능력 각 문항은 5점 만점의 Likert 척도로 ‘매우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전혀못함’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8이었다.

2.3.2 수행자신감

본 연구에서 수행 자신감이란 활력징후측정, 간헐적 위관 영양, 수술 전 간호, 단순도뇨,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비강캐놀라를 이용한 산소요법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교육 전과 후에 자가 보고형식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만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간호의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3.3 불안

본 연구에서 불안은 Spielberger가 개발한 STAI(State Trait Anxiety Inventory)를 Kim과 Shin이 변안한 도구 중 상태불안검사 20문항을 사용하였다 [17,18].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Kim(197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18].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A 대학교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 (AN01-201612-HR-009-01)심의를 통과하였고, 본 연구 수행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시작 전에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가진 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설문지 작성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자료는 비밀보장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대상자는 연구 중이라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5 자료수집방법

2016년 12월 20~23일까지 경기도 A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시작 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및 불안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은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다음 학기 임상실습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핵심기본간호술 주제(활력징후측정, 간헐적 위관 영양, 수술 전 간호, 단순도뇨,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비강캐놀라를 이용한 산소요법)를 학생들이 1:1로 임상강사로부터 실습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은 각 주제별로 1명의 담당 임상강사가 8명의 학생을 한 조로 구성하여 80분 수업으로 진행하는데 학생들은 임상강사의 지도하에 개별 실습을 하고 이때 다른 학생들은 관찰을 하여 간접실습을 여러차례 실시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이 끝난 후 대상자의 간호수행능력과 수행

자신감 및 불안에 대한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에는 각각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간호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불안의 전, 후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 3) 간호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및 불안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성별은 여자가 152명(86.4%), 남자가 24명(13.6%)이었고, 평균연령은 22.8세이었다. 대상자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102명(50.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 65명(36.9%), ‘불만족’ 9명(5.1%)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는 ‘높음’이 77명(43.8%)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 67명(38.1%), ‘매우 높음’ 18명(10.2%), ‘낮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year)	<22	133 (75.6)
	23<	42 (23.9)
Gender	Female	152 (86.4)
	Male	24 (13.6)
Satisfaction on nursing	Satisfaction	102 (58.0)
	moderate	65 (36.9)
	Non-satisfaction	9 (5.1)
Stress level before clinical practice	no	4 (2.3)
	low	10 (5.7)
	middle	67 (38.1)
	high	77 (43.8)
Difficulties before clinical practice	Lack of nursing performance ability	67 (38.1)
	Lack of knowledge for nursing	50 (28.4)
	Communication	38 (21.6)
	Assessment ability for patient	11 (6.3)
	Human relationship	10 (5.7)

음’ 10명(5.7%)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앞두고 가장 어려운 것은 ‘간호수행능력의 부족’이 67명(38.1%)로 가장 많았고, ‘전공 지식의 부족’ 50명(28.4%), ‘의사소통’ 38명(21.6%), ‘대상자 사정’ 11명(6.3%), ‘대인관계’ 10명(5.7%) 순으로 나타났다.

3.2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이 간호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불안에 미치는 효과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이 간호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불안에 미치는 효과는 Table 2와 같다. 첫째,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후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이 실습 전 (3.82±.66)보다 실습 후(4.40±.59)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11.57, p<.001). 핵심기본간호술 항목별로는 활력징후측정(t=-3.18, p=.002), 간헐적 위관 영양(t=-8.38, p<.001), 수술 전 간호(t=-13.94, p<.001), 단순도뇨(t=-7.35, p<.001),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t=-10.26, p<.001), 비강캐놀라를 이용한 산소요법(t=-11.86, p<.001) 6개 항목 모두에서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수행자신감이 실습 전(3.17±.67)

Table 2. Reeducation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effects on the competence, confidence and anxiety (N=176)

Variable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competence	3.82±.66	4.40±.59	-11.57	<.001
Vital sign(V/S)	4.18±.69	4.39±.82	-3.18	.002
Intermittent gastric tube feeding	3.71±.84	4.35±.84	-8.38	<.001
Pre operative care	3.25±.88	4.34±.73	-13.94	<.001
Nelaton Catheterization	3.96±.76	4.41±.69	-7.35	<.001
Using pulse oximeter & EKG monitoring	3.57±.80	4.32±.79	-10.26	<.001
Oxygen therapy with nasal cannula	3.83±.83	4.50±.58	-11.86	<.001
confidence	3.17±.66	4.06±.83	-12.45	<.001
Vital sign(V/S)	3.52±.84	3.97±1.08	-4.73	<.001
Intermittent gastric tube feeding	2.99±.89	4.03±1.05	-10.81	<.001
Pre operative care	2.69±.89	4.09±.92	-15.32	<.001
Nelaton Catheterization	3.29±.79	4.20±.91	-11.05	<.001
Using pulse oximeter & EKG monitoring	3.23±.85	4.04±1.07	-3.60	<.001
Oxygen therapy with nasal cannula	3.31±.80	4.06±.95	-8.75	<.001
anxiety	2.51±.48	2.24±.53	-4.76	<.001

보다 실습 후(4.11±1.08)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10.21, p<.001$).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 불안이 실습 전(2.51±.48)보다 실습 후(2.24±.53)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4.76, p<.001$).

3.3 간호수행능력, 수행자신감과 불안 간의 관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들의 간호수행능력과 수행자신감이 순상관관계($r=.56, p<.001$), 간호수행능력과 불안이 역상관관계($r=-.24, p<.001$), 수행자신감과 불안이 역상관관계($r=-.36, p<.001$)를 나타내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competence, confidence and anxiety (N=176)

	Competence	Confidence	Anxiety
Competence	1		
Confidence	.56(<.001)	1	
Anxiety	-.24(.001)	-.36(<.001)	1

4. 논의

본 최근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중심으로 변화되어가는 임상현장에 적응하기 위하여 간호수행능력이 우수한 간호사를 배출하여야 하는 것이 간호교육자의 중요한 책임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실습을 마치고 임상실습에 들어가기 전 2학년 재학생들에게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간호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는 54.0%가 ‘매우높음’이나 ‘높음’으로 응답하였으며 대상자들 중의 38.1%는 임상실습을 앞두고 가장 어려운 것은 간호수행능력의 부족이라고 하였다. 간호학생들에게 첫 임상실습은 가장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7]. Lee 등은 임상실습을 처음 시작하는 2학년들이 인지하는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 중 가장 큰 부분이 지식의 부족과 간호수행능력의 부족 순으로 보고하였다[19]. 간호학과 1~2학년 동안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목을 통해 간호술기에 대한 학습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실습 시간 내에 학생 개인이 해당술기에 대해 연습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이들의 간호술기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핵심기본간호술 술기 훈련을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이 요구된다[20].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학 실습을 마친 2학년 재학생에게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후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이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 항목별로는 활력징후측정, 간혈적 위관 영양, 수술 전 간호, 단순도뇨,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비강캐놀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6개 항목에서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ung과 Kwon의 핵심기본간호술인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수행능력과 지식 자신감이 재교육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보고와 실습실 개방 자율실습이 간호학생의 근육주사 간호술기에 대한 자신감 및 수행능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1,12]. 실제 많은 대학에서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은 기본간호실습에서 시작하여 학생들의 자율실습과정을 거쳐 임상실습교과목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본간호실습은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이 25:1 이하의 교육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실습교육이 어렵고 따라서 자율실습과 1:1의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 특히 1:1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은 학생들의 미숙한 수기술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수행자신감이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프로그램 후 활력징후와 경구투약에서 높은 수행자신감을 보인 염영란 등의 연구와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후 간호학생의 피하주사 및 유치도뇨 수행자신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와 일치한다[11,16].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경험이 많은 신규간호사의 경우 업무 수행자신감과 업무수행능력도 높았으며 업무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업무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고 하였으므로 학년에 따른 체계적 핵심기본간호술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1].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 불안이 실습전보다 실습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의 간호학생들에게 총 20시간의 밀착형 실무진입 임상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는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제공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임상수행능력이 증가하였고 상태불안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낸 연구와 유사하다[22]. Kim과 Lee는 2주간의 첫 임상실습을 한 간호학생이 수업만 받는 학생들보다 지각된 스트레스와 상태불안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여 향후 임상실습으로 인한 간호학생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7].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수행능력과 수행자신감 및 불안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이 간호수행능력과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전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기술로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 전 방학기간에 운영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임상실습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과 수행자신감이 향상되고, 임상실습 전 불안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핵심기본간호술을 실습하는 대상자들에게 교육 전 후로 변수들을 측정했으나 그 효과의 지속정도를 추가로 확인하지 못한점과 대조군과의 직접 비교검증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대상자를 일 대학의 2학년 간호대학생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국대학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을 시행한 후 간호수행능력, 수행자신감, 불안의 전 후 차이를 파악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A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176명이며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은 2016년 12월 20~23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후 간호대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간호수행능력과 수행자신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불안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에 핵심기본

간호술 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수행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므로 학년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기본간호술을 실습하는 대상자들에게 교육 후 그 효과의 지속정도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I. S. Kwon. (2002). An Analysis of Research o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5), 706-715.
DOI : 10.4040/jkan.2002.32.5.706
- [2] J. J. Yang & M. Y. Park. (2004).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0(1), 271-277.
- [3] M. H. Cho & I. S. Kwon. (2007).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2), 143-154.
- [4] D. W. Choi. (2014).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s on the Essential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184-191.
DOI : 10.5977/jkasne.2014.20.2.184
- [5] Y. H. Kim & K. S. Jang. (2011). Effect of a Simulation-based Education on Cardio-pulmonary Emergency Care Knowledg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Problem Solving Process in New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2), 245-255.
DOI : 10.4040/jkan.2011.41.2.245
- [6] H. M. Kim. (2009).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4), 399-408.
- [7] J. I. Kim & J. S. Lee. (2011). Effects of Clinical Training on Stress, Anxiety and Changes in Autonomic Nervous Syste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3(2), 102-108.
- [8] H. J. Park & I. S. Jang. (2010).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14-23.
DOI : 10.5977/jkasne.2010.16.1.014

- [9] C. J. Klein & E. R. Fowles. (2009). An investigation of nursing competence and the competence outcomes performance assessment curricular approach: Senior students' self-reported perception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5*(2), 109-121. DOI : 10.1016/j.profnurs.2008.08.006
- [10] The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17).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Core basic nursing skill items*. The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http://kabone.or.kr/HyAdmin/upload/goodFile/120140117153430.pdf>
- [11] M. S. Jung & Y. S. Kwon. (2015). Th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Re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and Confid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4), 295-302. DOI : 10.14400/jdc.2015.13.4.295
- [12] S. Y. Yun & S. H. Choi. (2016). Effects of Open Laboratory Self-directed Practice on Knowledge, Self-confidence, and Skill Competency of Intramuscular Injection.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412-420. DOI : 10.5762/kais.2016.17.5.412
- [13] I. S. Lee & C. S. Park. (2016).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y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2*(3), 297-307. DOI : 10.7739/jkafn.2015.22.3.297
- [14] A. Han, D. S. Cho & J. Won. (2014).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and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s in Nursing Practicum among Final Yea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1*(2), 162-173. DOI : 10.7739/jkafn.2014.21.2.162
- [15] H. J. Kang, J. O. Kim, H. S. Kim, S. Y. You, S. Y. Choi & H. M. Hwang. (2016). Effects of the Self-observation method of Essential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confid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9), 227-241. DOI : 10.22251/jlcci.2016.16.9.227
- [16] Y. R. Yeom & K. B. Choi. (2016). Effects of the Reeducation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Clinical Stres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Confidence in Nursing Skill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283-293. DOI : 10.5977/jkasne.2016.22.3.283
- [17] C. D. Spielberger. (1975). Anxiety: state-trait process. In C. D. Spielberger & I. G. Sarason (Eds.), *Stress and anxiety: The series in clinical psychology*. (pp.115-143). Washington, D. C. : Hemisphere.
- [18] J. T. Kim & D. K. Shin. (1978). A study based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Korea. *The New Medical Journal, 21*(11), 69-75.
- [19] S. J. Lee, Y. M. Park & S. M. Noh. (2013). The effects of Simulation Training with Hybrid Model for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erformance Ability and Self Confidenc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2), 170-182. DOI : 10.7475/kjan.2013.25.2.170
- [20] Y. S. Byeon. (2005).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Practicum of Fundamentals of Nursing in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2), 169-176.
- [21] S. S. Bang. (2014). *Relationship among essentials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performance, stress from work and work capability of new clinical nurse*. Master's thesis, SahnYook University, Seoul.
- [22] H. S. Jang & J. S. Lee. (2016). Effects of Intensive Clinical Training for Nursing Students in Nursing Practice on their Clinical Competence, State Anxiet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3*(4), 419-429. DOI : 10.7739/jkafn.2016.23.4.419

저 자 소 개

윤 은 주(Eun-Joo Yoon)

[정회원]



- 1982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01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 박사
- 1983년 9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핵심기본간호술, 건강증진행위

박 영 미(Young-Mi Park)

[정회원]



- 2002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05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시뮬레이션, 다문화 간호